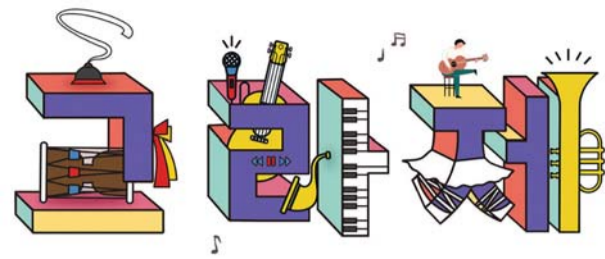


온 가족 공연예술축제 종죠?



문화예술의 즐거움으로 광주를 재울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다음주 찾아온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0~21일, 12일 동안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잔디광장 등 곳곳에서 심 없이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연다. '그라제'는 '그렇지'를 뜻하는 전라도 갈탄사로 이탈리아어로 '그라찌에(Grazie)'는 '고맙습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축제는 클래식, 국악, 오페라, 합창, 연극, 어린이 뮤지컬 등 22개 공연과 아트마켓, 푸드 트럭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모든 공연 관람료는 1만원(학생 5000원)으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버스킹과 일부 전시는 무료로 볼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광주문예회관 '그라제' 10~21일 22개 공연·전시·체험행사

장일범씨 진행 코믹 오페라·뮤지컬 '시카고' 하이라이트 재즈·발레·창극·음악영화·푸드트럭·아트마켓 등 다채 홍지민·정인·JK 김동욱 등 출연...공연마다 관람료 1만원



홍지민 정인 JK 김동욱



광주시립창극단의 창극 '춘향가' 공연 모습.

◇다양한 장르음악 화합의 무대 먼저 11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이 로시니와 모차르트의 대표작인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개막공연 '코믹오페라 로시니 vs 모차르트'를 연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씨가 진행을 맡고 카메라라 전남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테너 강동명과 소프라노 정수희가 경쾌하고 재치있는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다.

다음날인 12일(오후 7시 30분)에는 앙상블 클라비어가 연주하는 4대의 피아노 화음에 가수 박지민이 호흡을 맞춘다. 김이근씨의 진행으로 '서울 아리랑', 쇼팽의 '녹턴', '하나뿐인 거울' 등의 노래로 무대를 채운다.

14일에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서희태 지휘자가 이끄는 말레니엄심포니와 협연한다. 이명석 안무감독이 연출을 맡아 펼쳐지는 율츠, 풀가, 삼바 등 춤사위를 펼치고 뮤지컬 '시카고'의 하이라이트와 이적의 '말하는 대로' 등 익숙한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이외에 소프라노 신델라의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신델라의 위드 유' (13일 오후 7시 30분)와 리듬체조, 치어리딩 등 스포츠와 비보잉이 접목된 퍼포먼스 '플라잉' (16일), 가을 밤을 재즈의 정취로 물들인 재즈파크 백밴드 위드 JK김동욱 (18일)도 관객을 기다린다. 광주시립발레단은 21일(오후 7시 30분) 해설과 함께 '지젤 2막'과 '할리퀸네아드' 그랑 파드되 등을 무대에 올린다.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의 무대도 준비돼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랫말로 20년 넘게 사랑받아온 유리상자는

17일(오후 7시 30분)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널 사랑하겠어'로 화음을 선사한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일(오후 7시 30분) 지난 4월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 참가한 가수 정인과 함께 국악과 대중가요의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낸다.

◇온 가족 함께 즐기는 창극·뮤지컬·영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소극장 무대도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끊임없이 채워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은 10일 오후 7시 30분 축제 전야공연으로 창극 '춘향가' 중

'옥중비가' 공연을 펼친다. 창극단 30주년과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새롭게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는 번사포의 수정을 거부한 죄로 감옥에 갇혀 이몽룡을 그리는 춘향의 애뜻함을 열창한다.

12일 오후 2시와 5시에는 인기 웹툰 '사춘기 메들리'를 극단 본다가 재구성한 연극이 소소한 감동을 전한다. 이어 전제혁의 하모니카 연주 (13일 오후 5시), 장승호와 기타4의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 (14일), 비올라 앙상블인 '올라 비올라 사운드'의 영화음악과 뮤지컬 공연(15일 오후 7시 30분), 금관악기 밴드 퍼니밴드의 '싱!싱!싱!' (16일 오후 5시), 팡파라 로 맨스 그레이의 '금지곡 콘서트' (17일 오전 11시) 등이 이어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17일 오후 6시 30분 야외극장에서 호른, 트럼펫 등으로 구성된 금관앙상블을 통해 왈터스의 '인스턴트 콘서트', 비틀즈 '렛잇비' 등으로 가을 밤을 수놓는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19~20일 오후 5시에는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가 소극장에서 어린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20분 정도 시간을 내 광주문예회관의 플라타너스 산책로를 따라 대극장, 갤러리, 국악당을 거쳐 7곳에 비치된 도장을 찍어오면 31일(오후 7시 30분) 열리는 '여행스캐치의 가을소풍 콘서트' 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20일까지(15일 제외) 매일 오후 8시에는 잔디광장에서 '사인', '그리스',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등 음악영화를 상영한다.

이밖의 공연 소식은 '그라제' 홈페이지(graie.net)에 실렸다. 공연을 6개, 12개씩 묶은 패키지 티켓을 예매하면 절반 가격에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4~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재석 작 '정호선생 시'



왕치양 작 'fight for beauty and fight'

한중 젊은 작가들 동양정신, 예술을 피우다

의재문화재단은 전통회화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기 위해 15년 전부터 중국 선전 관산월미술관과 수묵교류전을 번갈아 열었다. 또 전통화 뿐 아니라 사진, 영상, 설치, 미디어, 유희 등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전통의 현대적 확장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중국과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2018한중미술교류전 -동양정신, 예술을 피우다'가 오는 11월 11일까지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이 참여해 시대정신의

창작국악단 도드리 21주년 정기공연

'광주, 아시아의 빛으로' 주제 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창작국악단 도드리(이사장 김재섭)가 창단 21주년을 맞아 오는 6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정기 공연을 연다. '광주, 아시아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국악가요 '아리랑 광주'를 무대에 올린다. 배창희씨가 작사·작곡하고 통기타그룹 프롤로그가 협연해 선보이는 이 곡은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민중의 넋을 노래했다.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공연 모습.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국악과 함께 우리 소리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노래들로 관객을 맞이한다. 도드리가 탄생시킨 아마추어 피리 연주자 그룹 '트라이앵글'은 '사랑하는 그대에게'와 '홀로 아리랑'을 연주하며 창단 21주년을 축하한다. 도드리가 6년 넘게 태평소 연주를 재능기부하면서 결성된 시각장애인학교 영광원 잠빛 누리꾼은 '섬집아가', '아리랑'으로 무대를 꾸민다. 한국무용가 임예은씨는 창작 유희곡 '아시아의 빛'과 함께 무대에 서고 해금 김단비씨가 '바람꽃', 피아노 전진호씨가 '프론티어'를 협주한다. '심청가' 중 '방아타령'은 김보배씨의 소리와 국악관현악 협주로 만난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창작국악단 도드리는 그동안 국악으로 세대간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300여 차례 열고 있다. 문의 010-4820-99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난원합창단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내일 금호아트홀서 무료 연주회

창단 6주년을 맞는 광주난원합창단(사진)이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두 번째 정기 연주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연다. 지난 2012년 광주여고총동문합창단으로 시작한 난원합창단은 지난해 12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행사 무대에 오르고 지난 4월 광산구장애인복지회관 행사, 6월 고려인 한마당축제에 참가하면서 노래를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혜숙씨가 지휘를 맡고 피아노 김선영, 첼로 허연희, 바이올린 강하선 등이 협연한다. 또 바리톤 이은철, 소프라노 유형민과 박진희 순천대 겸임교수가 출연한다. 무대는 한국가곡과 오페라, 민요, 대중가요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신귀복의 '얼굴'로 문을 연 뒤 '오빠생각', '보리밭', '추심', '홀로 아리랑'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미국 '노란새', 멕시코 무곡 '치아파네



카스', 러시아 민요 '백만송이 장미'를 선보이며 장르를 넘는다. 박춘희, 박광자, 노성숙 등 18명으로 구성된 중창팀은 '영원한 사랑'과 '나는 열 일곱 살이예요'를 부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